



특집

Feature articles | 육계업 현안에 대한 전문지 기자들의 시각

2003년 겨울을 기억하십니까?

재작년 12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특수에 장사하는 재미를 느꼈어야 할 닭 외식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이었다.

여파는 당연히 계열업체와 사육농가에게로 미쳤고 농가들은 혹시 내가 키우는 닭이 살처분 대상에 속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당시 한 사육농가는 기자와 통화를 하며 “조류인플루엔자라는 게 내가 아무리 잘해도 닭이 못하면 끝장인 질병 같다”고 호소하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차단방역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꼭 이 한 농가뿐이 아니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했다는 사실에 자칭 타칭 베테랑 사육농가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런데 벌써 한 차례 경험해봤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해가 갈수록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업계의 인식이 안이해지는 것 같다. 기자의 착각이길 바라지만 농가들이든 업체 관계자들든 삼삼오오 모여서 ‘올 겨울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터지지 않겠냐’며 ‘내 영역에서만 발생하지 않으면 된다’는 답소를 나누

는 것을 꽤 목격한 듯도 하다.

혹시 최근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생산과잉은 특수 아닌 특수, 질병특수를 기대하는 심리도 있는 것은 아닌지.

주변국 정세를 볼 때 우리나라는 결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2003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는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급기야 우랄산맥을 넘어 유럽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에서 지난 여름 연속적으로 발생해 철새를 통한 겨울철 국내 유입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발생주의보 발령과 특별방역을 위한 협의체 구성, 유입방지 계획 등을 연이어 발표 추진하고 있으나 농장으로까지 그 계획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농장주가 국내 발병은 확실하고 자기 농장에서만 발병하지 않으면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전달될 리 만무하다.

질병특수는 역설이다.

산업의 존립기반 뿐 아니라 효율성을 깎아먹기 때문이다.

질병이 발생하면 병아리와 사료, 각종 영양제와 약품을 처방해 닭을 기르고 농장주의 노력과 각종 컨설팅 업체의 보살핌으로 생성된 산업 재원이 한 순간 무용지물이 되고 막대한 비용부담으로만 남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이 전염성이 높고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도 매우 위험하다고 평가하는 A등급 질병은 더욱 그러하다.

비용의 상당부분은 물론 최근 바닥이 났다며 문제시되고 있는 '국민의 세금'에서 충당되게 된다.

2003년 12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전국 10개 시·군 19개 농가에서 발생, 530만 마리의 닭과 오리들 땅에 묻으면서 입은 직접적인 피해액은 1,500억원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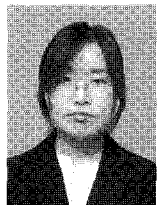
세계적인 발병으로 수입선이 막히면서 국내 업계가 대호황기를 맞았으므로 업계가 실감하는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은지도 모르겠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발생하면서 겪은 당혹감과 위기의식 때문에 살처분 농가에 대한 정부의 보상도 섭섭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소비자들이 준 보상도 물론 섭섭하지 않았다. 거의 매일 두 끼니 이상 닭을 먹어가며 소비촉진 행사에 매달렸던 업계의 눈물겨운 노력도 있었지만.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질병 방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땅값 오를 때까지만 닭을 키우고 공장을 돌릴 사람이 아니라 닭고기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업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특히 그러하다. 먹거리 산업의 초석인 질병방역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산업이 한 발자국 내딛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수입과의 차별화, 원가절감, 고단백 백색육 닭고기의 대중화 시대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겠는가.

부디 업계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향 평준화되려는 안이함에 주저앉지 않고 양계산업에 몸담고 있다는 자부심을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란다. C



장 두 향 기자
농수축산신문